

『구운몽』의 사상적 배경 연구

—『주역』 복괘와 도교의 신선사상을 중심으로—

박 성 재(경상대)

< 목 차 >

1. 서론
2. 『주역』 복괘와 『구운몽』의 서사 전개
3. 김만중 시에 나타난 신선사상
4. 결론

국문초록

근래 『구운몽』의 사상적 동기론 및 배경론에서 동아시아의 기존의 사유방식인 역학적(易學的) 세계관이 시선을 끄는데, 본고는 주역의 세계관과 도교의 신선사상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유학자로서 작가의 역학적 소양보다도 작가가 말년 가장 불우했던 남해 유배지에서 마지막으로 쓴 한시 「동지(冬至)」는 이 소설 창작 배경이 직접 『주역』의 팔괘와 도교의 핵심 사상인 신선사상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서포 김만중은 선경(仙境)인 고도(孤島) 남해 유배지에서, 한시 「남해에서 두 조카가 외딴 섬에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에서, 모두 ‘신선’이 돼 있는 셈이라는 자조(自嘲) 섞인 절규라고 할 수 있는 한시를 지었다. 본고에서는 한시 「동지」에서 언급한 『주역』의 복괘와, 도교의 신선사상의 의미가 『구운몽』 창작 배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이 소설에서 심요연과 주인공 양소유가 만나는 내용은 뇌화풍(雷火風)으로 ‘번개 우렛소리가 위에 들리고 번개가 아래를 비춘다’이다. 실제로 서포는 이 한시 「동지」에서 보듯이 “바닷바람 밤새도록 우레처럼 소리치네, 또 등불 앞 나그네 주역을 읽노라니”라고 했다. 『주역』에서 풍괘는 “성대한 자로 양기가 지극히 왕성할 때”를 태의팔괘도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양소유의 위엄으로 작용하는 우레가 이 괘상의 대상(大象)이 의미하듯이 『주역』에서는 “우렛소리와 천둥소리가 함께 오는 풍”이다. 또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김만중이 선천 유배지에서 만난 어느 노승과 불교와 『주역』 복괘 등의 주역적(周易的) 상상력의 문답에서 풀지 못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남해 적소에서, 『주역』과 『주자어류』를 주로 읽었던 것으로 본다면, 이 소설과 한시 「동지」가 남해 유배 시절, 도교의 신선사상과 주역적 상상력으로 같은 심상에서 창작되었을 개연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불교나 유·불 대립의 배경론이 유력하게 제기되었으나 이제부터는 근래에 부상한 역학적 세계관과 관련된 도교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노자와 『역전(易傳)』의 음양사상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시점이다. 『구운몽』의 사상적 배경 연구는 역학적 세계관과 도교 철학관과 연관성이 있는 노자(老子)와 『역전』의 음양사상과의 관련성으로 그 연구 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핵심어 : 구운몽, 주역(周易), 복괘(復卦), 동지(冬至), 도교, 신선사상.

1. 서론

이제까지의 『구운몽』 연구 중에서 창작 동기론이나 배경론은 작품의 외적 요인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의의가 있다. 『구운몽』이 당대부터 서포 김만중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창작되었다는 동기론이 이

어져 왔고¹⁾ 사상적으로 삼교(三敎)융합,²⁾ 불교,³⁾ 유·불 대립,⁴⁾ 사회적으로 가문 의식,⁵⁾ 심리적으로 모성 복합심리⁶⁾ 등이 배경론으로 거론되었다. 이와 함께 소설의 효용론을 긍정한 작가 의식이 창작에 기여하였다는 점도⁷⁾ 지적되었고, 작품 구조와 소설사적 전개,⁸⁾ 17세기 호색 소설에 나타난 구조의 공통성,⁹⁾ 중국 소설의 전고의 수용¹⁰⁾ 등이 논의되었다.

이런 점에서 창작 동기론이나 배경론을 통해 『구운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지만, 아직도 고찰해 볼 부분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도 김만중이 유배 시절, 그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논의에서 작품의 근원이 되는 사상이 무엇인지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사상적으로 불교나 유교·불교 대립의 창작 동기론 및 배경론이 유력하게 제기되었으나, 근래에 부상한 역사적 세계관에 대한 논의¹¹⁾가 주목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전자의

-
- 1) 김병국, 『서포 김만중의 생애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144~150면.; 이가원, 「구운몽 평고」, 『구운몽』, 연세대학교출판부, 1970, 15~16면.; 신재홍, 「구운몽과 『주역』의 복괘의 관련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제38집, 2018, 140~141면.
 - 2)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116~118면.
 - 3) 이강옥, 『구운몽의 불교적해석과 문학치료교육』, 소명출판, 2010, 9~203면.; 유병환, 『구운몽의 불교사상과 소설미학』, 국학자료원, 1998, 19~373면.; 정규복, 『구운몽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 214~247면.
 - 4) 김일렬, 「구운몽의 구조와 사상」, 『조선조 소설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1984, 53~62면.; 조동일, 「구운몽과 금강경, 무엇이 문제인가?」, 『김만중연구』, 새문사, 1983, III·20면.;
 - 5) 정출현, 「구운몽의 작품세계와 그 이념적기반」, 『김만중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141~199면.; 김석희, 「서포소설 주제 시론」, 『선청어문』 제18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234~246면.
 - 6) 김병국, 「한국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5, 306~327면.
 - 7) 조동일, 「김만중」,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1978, 214~215면.; 줄고, 「서포소설 성립의 배경 연구」, 『남명학연구』 52, 경상대학교, 2016, 79~120면.
 - 8) 신재홍, 『한국 몽유소설 연구』, 계명문화사, 1994, 1~176면.
 - 9) 정길수, 『구운몽 다시 읽기』, 돌베개, 2010, 163~187면.
 - 10) 엄태식, 「구운몽의 이본과 전고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44~119면.; 정규복, 앞의 책, 262~317면.
 - 11) 신재홍, 「구운몽과 『주역』 복괘의 관련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제38집,

타당성이 입증되어 논의는 일단락되었다고 하나 필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역학의 역수 9, 8, 6 등 작품에 나온 숫자를 중심으로 주역의 역리로 논한 연구로써 문제가 제기된 이후,¹²⁾ 『구운몽』에 대해 주역의 역리적 해석을 시도한 논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¹³⁾ 이제 『구운몽』의 사상적 배경 연구는 동아시아의 기존의 사유 방식인 역학적 세계관과의 관련성으로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다.¹⁴⁾

이에 필자는 『구운몽』에서 『주역』의 역리로, 1명의 건(乾)인 남성과 8명의 곤(坤)인 여성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는 점이 『주역』 팔괘(八卦)와 도교의 신선사상과 연관지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이 소설에 구현된 현실과 꿈, 유불의 대비적 구조와 주제도 『주역』과 관련¹⁵⁾될 수 있다. 이렇게 서사, 인물, 구조와 주제 등 작품 전반에 걸쳐 이 소설에 나타난 도교의 신선사상과 함께 역학적 상관성을 논하려는 것은, 유학자인 작가의 역학적 소양보다 더 직접 관계된 것이 남해 유배 시절, 창작 당시의 상황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김만중이 선천 유배지에서 어머니의 근심을 덜고자 『구운몽』을

2018. 140~142면.

- 12) 배영희, 『구운몽의 역학적 분석』, 원용문예, 1995, 13~403면.
- 13) 전선영, 「구운몽의 역학적 세계관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76면.; 황혜진, 「음양오행적 상상력에 기반한 구운몽의 창작과 향유 방식 연구」, 『고전문학과교육』 제35집, 한국고전문학 교육학회, 2017, 153~189면.; 박상만, 「구운몽에 나타난 시공철학관 연구」, 수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76~102면.; 김학돈, 「한국소설의 시간과 공간 연구-역경의 관점에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6~64면.
- 14) 신재홍, 「구운몽과 『주역』의 복괘의 관련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제38집, 2018. 또 『구운몽』이 아닌 다른 고전 소설에 대해 역학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들도 있다. “신봉진, 「옥루몽과 홍루몽의 구조미학 비교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73~191면.”에서 『옥루몽』을 『홍루몽』과 비교하면서 인물과 서사 구조에 대해 주역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또 “양명학, 「한국 소설의 주역적 연구-소설 원리와 서사 구조를 중심으로」, 이주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2, 92~135면.”에서 『장경진』을 건괘(乾卦), 『춘향전』을 곤괘(坤卦)의 효사를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 15) 신재홍, 앞의 논문, 141~142면.

창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남해 유배기에 저작한 『서포만필』 하권에는 집중적으로 『주역』의 역리를 언급한 글들이 실려 있고, 한시 중에도 역학적 사고가 반영된 작품들이 있다.¹⁶⁾ 특히, 이 소설의 창작 시기를 한시 「동지」에 나타나는 『주역』의 역리와 도교의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본다면, ‘팔괘’와 ‘신선사상’의 의미가 이 소설 창작의 주요 동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한시 「동지」에서 나타나는 『주역』의 역리와 연관된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이 소설의 사상적 배경과 작품 성격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본 논의에서는 김만중의 종교적 인식 및 사상적 배경과 작품 세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해명하는 자리가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만중이 남해 유배 시절, 그가 『주역』의 역리와 도교의 신선사상에 어느 정도 취향을 가졌는가를 살피고, 한시 「동지」와 『서포만필』 하권에 나타나는 역학적 세계관과 도교의 신선사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역』 복괘와 『구운몽』의 서사 전개

1) 창작 배경으로서 동지(冬至)

김만중은 도리를 논하면서 『주역』의 이치를 응용하는 모습은 작가의 여러 저서에서 발견된 바 있다. 실제로 이 소설에서도 양기(陽氣)의 주인공 양소유가 음기(陰氣)로만 지나치게 감해버린 소인배들을 퇴치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白龍潭陽浪波陰兵」)은 마치 영웅의 서사적 행적에 비유되어 이 소설의 내용에 나타난다. 『구운몽』에서 주인공 양소유가 백룡담의 물을 다스린다는 상징성은 양(陽)이며 건(乾)을 의미하는 양소유가 팔곤(八坤) 중 하나인 용녀를 다스림으로 음(陰)과 하나 됨을 의미한다. 『주역』에서 도의 완성을 상징하는 태극은 음양(陰陽)과 건곤(乾坤)의 융합이

16) 김만중 저, 홍인표 역주, 『서포만필』, 일지사, 1987, 2면.

다. 17) 풍우란(憑友蘭)은 ‘팔괘’의 역리철학에 대해, 천지 만물을 근거로 ‘팔괘[팔선녀]’를 그려 그 실정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복희가 천지 만물을 근거로 8괘를 그려 우주의 비밀을 벗기고 만물의 실정을 헤아렸다고 하듯이 우주에서 최대의 것은 천지이고 하늘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해와 달, 지상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산과 못이고,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물과 불이다.¹⁸⁾(밑줄:인용자)

이러한 ‘팔괘’의 ‘역리철학’은 김만중이 『서포만필』 하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역』의 수리(數理)에 대한 이치에 밝아 『구운몽』에 나타난 수들도 그렇게 착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¹⁹⁾

필자는 김만중이 남해 유배 시절, 『서포만필』 하권에서 처음으로 주장했던, 『주역』 팔괘(八卦)의 ‘역리철학’에 깊은 학문적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남해 유배지에서 주력했던 ‘역리철학’이란 바로 그가 2차 선천 유배 생활에서 어느 노승과 담론했던 팔괘(八卦)의 ‘음양 관계’를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이다.

이름은 한 사람의 정신세계를 대변한다. 이름이 지닌 획의 ‘수’와 상형의 ‘상’은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좌우한다. 『주역』의 역리에서 팔괘(八卦)란 “만사만물의 형태를 모방하여 ‘여덟 개의 기본괘’로 귀납하여 만사 만물의 적당한 물상을 상징하였는데 그래서 상(象)이라고 한다.”²⁰⁾

그러기에 팔괘는 ‘8’의 수와 더불어 자연의 상을 함께 가지고 나타난다.

『구운몽』에서는 주인공 양소유도 도의 덕목에 필요한 만물의 원리를 깨달

17) 高田淳, 이기동, 『주역이란 무엇인가』, 여강출판사, 1991, 110면.

18) 憑友蘭, 『중국철학사』 상권, 까치, 2007, 462면.

19) 배영희, 『구운몽과 동·철학의 만남』, 민속원, 2001, 22면. 이 소설에서 역학의 사상이 보인 내용들은 주인공 양소유가 ‘팔괘’를 상징하는 ‘팔선녀’와 함께, 여러 자연 기미를 현실 속의 인물들에 비유시키는 내용들로 나타난다. 이러한 우주 구성의 4괘를 8괘와 만상에 비유시키고 있다. 즉 『구운몽』에서 ‘팔선녀’는 역학의 자연관을 표현하는 ‘팔괘’의 상징적 표현이다.(밑줄:필자)

20) 이종계·이재석 역, 『중국문화 개론』, 동문선, 1991, 372면.

아 이들과 화합하기 위하여 팔괘의 상을 가지고 태어난 ‘팔선녀’를 하나씩 섭렵해 나간다. 이 소설에서 ‘팔선녀’의 이름이 내포한 ‘팔괘’의 자연물 속에는 동·서양의 철학이 함축되어 있으며, 또 그 이름과 역할에는 『주역』의 역리 팔괘에서 나타나는 만사만물(萬事萬物)의 상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팔괘의 상이란

천(天)·지(地)·수(水)·화(火)·풍(風)·산(山)·뇌(雷)·택(澤)은 천지 변화의 흔적으로서 이들 속에 팔괘의 법상(法像)이 갖추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²¹⁾

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김만중은 남해 유배시절, 『주역』의 역리적인 면에서 보면 인간은 만물이 변하는 이치 속에서 때를 기다려 도를 달성하자고 한다. 실로 역(易)을 만든 장본인 문왕은 어려움 속에서 막힌 이치를 풀고자 자연적 상징인 ‘팔괘’를 만들었다. 그러기에 이 소설에서 자연의 상, 즉 주인공 양소유와 팔선녀는 그들의 노력에 따라 구도적(求道的) 역할로까지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화합 과정은 이 소설의 도(道)를 완성하는 과정에 속한다. 이렇듯 소설은 구체적인 상황 속의 구체적인 인물 형상을 통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서술한다.²²⁾

배영희는 “『구운몽』에서 ‘팔선녀’는 역학의 자연관을 표현하는 ‘팔괘’의 상징적 표현이 된다. 역학의 자연관은 ‘팔괘’와 ‘인간’의 관계로 대변되는데, 자연에 가장 잘 부합된 인간의 상을 최상으로 꼽는다.”²³⁾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앞의 구절(내가 서세에 있을 때)을 보아 『서포만필』 하권은 분명히 남해에서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논문을 읽도록 한다.

21) 고전순이기동 역, 『주역이란 무엇인가』, 여강출판사, 121면.

22) 최인자, 「작중 인물의 의미화를 통한 소설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7면.

23) 배영희, 위의 책, 215면. 『구운몽』은 유불선 삼교와 도가의 자연관들을 역학의 상징기법을 이용하여 명쾌하게 표현한 것이라 사료된다. 역학은 인간을 비롯한 자연 만상을 수와 상의 기법으로, 다시 말하면 우주를 담아내는 큰 그릇에 비유된다.(배영희, 같은 책, 43면.)

“기(氣)가 쌓여서 하늘이 되었으므로 건효(乾爻)는 모두 양(陽)이다. 형(形)이 쌓여서 땅이 되었으므로 곤효(坤爻)는 모두 음(陰)이다. … 천과 풍은 하나의 기이지만 풍은 천기가 내려와서 부드러워진 것이므로 건의 하효가 변해 손이 된다. … 천·지·수·화가 변해서 풍·산·뇌·택이 되어 8괘가 갖추어졌다.” 내가 서세에 있을 때 한 노승을 만났는데 그 말이 이와 같았다, 또 말하기를, “무량 세계는 단지 천·지·수·화의 넷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불가에서 이른바 사대라는 것도 의미는 한 가지이되 내가 천이 변해 풍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용처를 두고 말한 것이다.”²⁴⁾ 오늘 우연히 『주자어류(朱子語類)』를 보니, 거기에 구천강풍지설을 논했는데 이것과 다름이 없었다. 감(坎)이 하류를 막아 태(兌)가 된다는 설은 유서(儒書)에도 보이니, 아마 이 승려의 말이 내력이 없지 않을까 하는데, 이를 자세히 묻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²⁵⁾

위의 인용문에서 김만중은 선천 유배 시절, 노승과의 담론에서 노승은 『주역』 8괘의 성립에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였고, 불교의 사대(지·수·화·풍)가 천·지·수·화와 같은 의미라고 남해 적소에서 주장하였다. 후에 그는 『주자어류』에 나오는 구천(九天)과 강풍(剛風)의 설을 보고 그 노승의 말을 기억하였는데, 천이 풍으로 바뀐다는 설에 대해 세밀하게 물어보지 못한 것을 남해 적소에서 후회스럽다고 기록했다. 그 당시 천문 지리에 대한 자연 과학적 관심이 높았던 서포는 노승의 설에 큰 호기심을 가질 만하였다. 이는 선천 유배 시절 서포가 역학적 사고에 관심을 둔 예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남해 적소에서는 그것을 더욱 구체화²⁶⁾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김만중이 남해 적소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포만필』 하권 8칙에서, 처음으로 ‘팔괘[팔선녀]’를 언급했다는 점, 또 김만중

24) 김만중 저, 심경호 옮김, 『서포만필』 하, 문학동네, 2010, 43~44면. 원문은 45면. 積氣爲天 故乾爻皆陽 積形爲地 故坤爻皆陰……天風一氣 而風是天氣之下行而柔者 故變乾之下爻爲巽 ……天地水火之變爲風山雷澤 而八卦備矣 余在西塞時逢一老衲其言如此 又言 無量世界 只是天地水火四物而已 佛家所謂四大其義無二 而變天爲風者 以其用處言之.

25) 『西浦漫筆』, 앞의 책, 203~204면. 今日偶閱朱子語類, 其論九天剛風之說, 與此無二, 坎塞下流爲兌之說, 亦見於儒書, 恐此僧之說, 不無來歷, 悔不詳問之也.

26) 신재홍, 『구운몽과 주역 복괘의 관련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제38집, 142~144면. 팔괘의 괘명은 ‘乾兌離震巽坎艮坤’이고 그 괘상은 ‘天澤火雷風水山地’를 말한다.

이 『주자어류』 전질을 남해 향교에서 빌려다가 날마다 완독하며 손수 「주어찬요」를 저술했다는 점, 또 그가 서세에 있을 때 노승의 말을 ‘자세히 묻지 못한 것을 남해 적소에서 후회스럽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왜 하필 김만중이 남해 유배지에서 처음으로 ‘팔괘(팔선녀)’를 언급했을까? 이는 그가 남해 유배 시절, 팔괘의 음양 관계의 원리를 원용(援用)하여 8여인의 인물 배치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포만필』 하권과 『구운몽』의 저작 시점이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이렇지만 작가가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주역』 ‘팔괘(팔선녀)’와 관련지어 소설을 쓰게 된 동기와 배경을 밝힌 글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막연한 추측이 아닌 작가가 남해 유배 시절, 『서포만필』 하권에 직접 기록된 자료와 그 당시의 정황적 자료를 통해서,²⁷⁾ 김만중이 선천 적소에 있을 때 대덕 고승으로 생각되는 불승과의 교류를 가졌던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 교류는 남해 적소로 유배된 김만중의 마음에 위로와 불교와 도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적 확장²⁸⁾을 제공하였음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김만중은 이런 계기가 정치적 혼란기를 맞아 남해 적소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존의 유가 논리와 이단시하던 불가와 도가의 신선사상과 함께 한시 「동지(冬至)」를 바탕으로, 『주역』의 복괘를 접목해 이를 장편소설로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구운몽』의 창작 배경과 창작지, 사상적 배경 연구와 관련된 논의는 아직도 선명한 이해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27) 이 소설의 창작 배경에 대해서는 풀어야 할 물음이 여럿 남아있다. 즉, 김만중이 남해 유배 시절, 불교와 도교의 인생관을 확립하고 천착하게 한 동기는 무엇일까? ① 남구만이 김만중보다 10년 전 남해 적소에서 용문사를 배경으로 쓴 시가 있다는 점, ② 서포는 남구만의 소개로 용문사에서 선승인 순천 靈鷲山人 印成 스님과 교류했다는 점, ③ 남구만과 서계 박세당의 장자철학(『신주도덕경』)이 미친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이제는 자연과 관련된 인간 심성을 역할 팔괘의 기법과 도교의 신선사상을 중심으로, 『구운몽』과 『서포만필』 하권을 정치하게 비교 분석해야 할 것이다. (졸저, 앞의 책, 231~235면) 참조.

28) 설성경, 「서포문학의 초월적 세계」, 『남해관련 서포문학의 재조명』, 서포 김만중 기념사업회, 2002, 61~63면.

이러한 논의는 『구운몽』의 창작과 관련된 새로운 제3의 연구 방향, 즉 이 소설의 주해서(註解書)라고 할 수 있는 『서포만필』 하권과 이 소설을 정치학적으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이 소설에서 자연물 천·지·수·화는 풍·산·뇌·택과 함께 팔선녀의 인간으로 묘사된다. 이런 명백한 논거는 작가가 이 소설을 창작할 그 당시 농경사회 최고의 관심사였던 ‘인물성동론’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김만중은 남해 유배지에서 유학자로서 『주역』의 역점에 대한 견해를 수용하는 한편, 그 당시 실제 했던 사례를 들어 현실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서포만필』 하권에서도 나타난다.

상고 시대 백성들은 순박하여 지금 선비들과 달리 의리를 알지 못했고 그냥 무지해서 일마다 모두 깨닫지는 못했다. 그래서 성인이 『주역』을 만들어 그들을 가르쳐 길하면 행하고 흉하면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다가 후대에 이르러서는 의리가 명백해져서 일이 있으면 곧 의리로 판단하되, 오직 사람의 지모를 다했으나 깨닫지 못한 경우만 점을 쳤다.²⁹⁾

위의 인용문은 김만중이 『주역』의 활용에 대해 논한 글이다. 그는 남해 유배지에서 『주역』의 점은 아무 때나 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의리로 판단하고, 그다음 사람의 지모를 다했으나 깨닫지 못한 경우만 비로소 점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상의 삶에서 먼저 의리에 따른 실천을 중시하고, 그다음 『주역』의 점에서도 의리역(義理易)을 존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남해 적소에서 『주역』의 활용에 관해 설명하면서, 역리의 합리성을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의식을 지녔다. 따라서 김만중이 성리학 중심의 절대주의를 넘어서 남해 유배지에서는, 지금까지 유·불·도 삼교 사상 가운데 도외시하던 『주역』의 역리와 도교의 신선사상과 함께 그 의의와 역할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29) 김만중 저, 심경호 옮김, 위의 책, 412면.; 신재홍, 앞의 논문, 146면 참조. 원문도 같은 면. 上古民淳 未有如今士人識義理 蠢然而已 事事都曉不得 聖人作易 教他 吉則爲 凶則否 及後來 義理明 有事則便斷以義理 惟盡人謀 未得曉處 方卜.

이러한 주역의 원리를 작가 김만중은 남해 유배지에서 창작한 목적소설인 『사씨남정기』에서도 점복(占卜)을 통하여 위안을 받고 있는 당시 사회의 불안상(不安相)을 엿볼 수 있고, 점복과 신령, 그리고 경천사상(敬天思想)을 통해서 유교적 실천사상의 일면³⁰⁾을 엿볼 수 있다.

“인조반정이 있기 수일 전의 저녁에 어떤 종이 말을 끌고 점쟁이 김우정(金禹鼎)의 집 앞에 와서 말했다. (중략) 김우정이 점치는 일을 다 맞히고 일어나서 하례하며 말했다. “이것은 건괘(乾卦)의 구오효(九五爻)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대길(大吉)의 점입니다. 효사에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大人)을 보는 것이 이롭다’고 했습니다. 다만 도모하는 자가 소인이라면 감당해 내지 못할 것입니다.”³¹⁾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점을 이용하여 거사를 점쳐보는 것으로, 이러한 글을 보면 김만중은 절박했던 남해 유배 시절, 점이 천명이 있기에 복서가 환히 감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여 『구운몽』에서도 점으로 한 치의 틀림이 없이 앞날을 예상하는 여러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서포는 점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정통 유학자로서의 사상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바로 『구운몽』에도 반영되어 점치는 자 또는 상을 보는 자와 짜고 주인공 양소유를 골탕 먹이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재미가 있다.³²⁾

이 소설에서 한림(翰林)이 선녀를 만난 후에 미인이 즐겨 찾아오지 않으니 양생(楊生)이 태극궁(太極宮) 두진인(杜真人)에게 상(相)을 보기 위하여 맞아들인다. 두 상가(相家)가 양생의 상(相)을 보고 이르기를

30) 김무조, 『서포소설 연구』, 『동아논총』 제11집, 1974, 189~190면.

31) 김만중 지음·심경호 옮김, 『서포만필(하)』, 문학동네, 2010, 111~112면.
『주역』 건괘 효사에 陽인 건괘는 변화무궁하다 하여 모두 용에 비유했는데, 初九의 효사에는 “잠룡재연(潛龍在淵)”이라 하여 못에 숨어 있는 용을 구오(九五)의 효사에는 “비룡재천(飛龍在天)”이라 하여 하늘에 나는 용을 말했다.

32) 田善榮, 『『구운몽』의 역사적 세계관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19~20면.

“삼년만에 과거보고 장차 八州 刺使가 되리라”³³⁾

하니 양생(楊生)이 어진 사람은 복(福)을 묻지 않고 화(禍)를 묻는다. 말하며 양생 자신의 화를 묻는다. 여기서 작가 김만중은 절박했던 유배 시절, 그 당시 자신의 처지와 함께 이조사회(李朝社會)의 욕구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주역』 팔괘의 역리와 관련된 직간 ‘장차 팔주(八州)의 자사가 되리다.’는 이상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포는 남해 유배 시절, 『주역』의 역점과 음양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글에서도, 『구운몽』 창작의 배경으로 고려할만한 논문이 있다.

“주자의 서의(筮儀)에서 괘의 변효가 네 개와 다섯 개에 이르면 지괘(之卦)의 불변효로 점친다고 했다. 우리나라 선대의 유학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음양 중 노(老)로 변하는 것이 9와 6이고 소(少)로 불변하는 것이 7과 8이다. 이미 불변효라고 했으므로 그것은 곧 7과 8이다. (중략) 무릇 효 중 변하는 것은 본괘에서 보면 노(老)로서 장차 변하려는 것이고, 지괘에서 보면 이미 변하여 소(少)가 된 것이다. 이미 변해온 것을 소(少)라 하므로, 나머지 불변한 것은 여기에 비교해보면 노(老)가 되는 것이다. 이 이치는 매우 명백하고 깨닫기 어려운 점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주자가 애당초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다.”³⁴⁾

위의 인용문에서 『주역』은 변효인 노양 9, 노음 6으로써 각 괘의 음양을 표시하고 불변의 효인 소양 7, 소음 8은 나오지 않는데 주희가 불변의 효로 점친다고 했으니 이해에 혼란³⁵⁾이 생길 수 있었다. 이는 김만중이 남해 유배 시절, 도교의 신선사상과 함께 『주역』 역점의 방법에 대한 논설이지만, “이미 변하여 나온 것을 젊다고 한다면, 그 밖의 변하지 않은 것은 이것을 늙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변화와 불변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주역』의 모든

33) 김만중 저, 이가원 교주, 『구운몽』, 德基出版社, 4228, 112면 재인용.

34) 김만중 지음·심경호 옮김, 『서포만필(하)』, 문학동네, 2010, 409~410면.

35) 주희의 설명은 김상섭, 『역학계몽』, 예문서원, 1994, 209~210면에 나와 있다.

효는 변화의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을 새삼 확인해 준 논문이다.³⁶⁾ 이러한 논의는 그가 남해 유배 시절, 유학자로서 역점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수용하는 한편 당시의 절박했던 현실 상황에 맞는 이치로써 매우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한 것이다.

다음으로, 김만중이 남해 유배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아래의 한시 「동지」가 그 당시의 정황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동지(冬至)」

- ① 못 나무 우거졌는데 일어서 꺾이려 하고 萬木森森凍欲摧
- ② 바닷바람 밤새도록 우레처럼 소리치네. 海風終夜吼成雷
- ③ 등불 앞 나그네 주역을 읽노라니 燈前有客讀周易
- ④ 땅 밑의 미약한 양기 돌아올지 어떨지. 地底微陽回未回³⁷⁾

이 한시에 나타나는 동지의 절기와 날짜에 해당하는 『주역』의 괘는 '복(復)'이기에, 결구에서 '지저미양(地底微陽)이라는 복괘의 상(象)을 표현하였다. 괘사에 나오듯이 '뇌(雷, ☳)가 지(地, ☷)속에 있는' 형상이 복괘(䷗)인 것이다.³⁸⁾ 복괘(復卦)에서 '복(復)'은 '돌아온다', '만사형통' 한다는 뜻인데, 본래 상태로 회복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한시 「동지」에서, 김만중이 읽었다는 『주역』과 이 소설의 상관관계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일반적인 유자들이 읽었던 『주역』과 말년 절박했던 유배 시절, 김만중이 읽었던 『주역』은 어떤 차이점과 변별점이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논의는 소략한 논거이지만 이 소설의 창작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만중은 말년 유배 시절, 주어진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충분히 누리는 데서만 인생의 의미가 잡혀진다고 보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형상화된 것이 『구운몽』의 양소유이다.³⁹⁾ 본유한 인간성을 목살하고, 인간적·본능적 향락

36) 신재홍, 앞의 논문, 145면.

37) 김만중, 『서포집』, 앞의 책, 483면. (신재홍, 앞의 논문, 147면)

38) 편집부 교열, 『비지구해 원본 주역』, 명문당, 1999, 460면. 象曰雷在地中이復이니.(신재홍, 앞의 논문, 148면 참조)

을 무조건 타기해 마지않는 경직화된 유가자류(儒家者流)와 서포는 그 의식 세계에 있어 차원을 달리했기⁴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영대는 “이 한시는 위의 번역에서 보였듯이 ①, ②는 남해 섬의 몹시 심한 강한 추위의 겨울 풍경이요, ③은 남해 적소 방안에서 주로 『주자어류』와 함께 주역을 읽는다는 뜻이며, ④의 결구에서는 땅 밑에 미양(微陽)은 『주역』 복괘의 제일 효를 말하며 회미회(回未回)는 바로 복괘의 설명이다. 이러한 작자의 의도된 저의를 생각한다면, 이 시에서 쓴 『주역』 역리의 은유적 기법을 평가하게 된다.”⁴¹⁾라고 설명 하였다.

그런데 신재홍은 위 한시를 설명하면서, “바로 앞에 「기사구월이십오일(己巳九月二十五日)」이 실려 있어, 이 작품(동지)이 남해로 유배 온 기사년(1689) 동지 즈음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⁴²⁾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한시가 바로 기사년의 「동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한시는 그의 문집인 『서포집』 맨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으며, 김만중이 남해 유배지에서 ‘동지’를 세 번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글에서 신재홍은 “이 한시는 남해 시기의 것이므로 선천 시기에 창작된 『구운몽』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다.”⁴³⁾라고 설명하고 있다.

39) 황폐강, 『조선왕조소설연구』, 단국대출판부, 18면 참조.

40) 서포의 의식은 문학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는 현실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따른 영욕을 갖가지로 체험하였다. 그 가운데서 현실적 가치 이상의 높은 가치를 보았거나, 보기를 갈구했던 선비이며 작가였다. 바로 그 점에서 시류에 영합하여 부침무상한 생을 보내며, 형식적인 명분에만 얽매어 더 높은 것을 볼 수 없었던 당대의 속유(俗儒)와는 내면적으로 달랐다고 하겠다. (황폐강, 「김만중의 문학과 유가적 사의식」, 『김만중연구』, 새문사, 1983.) 즉, 김만중의 초기 유교관은 거둬드는 유배 생활과 가정의 불운이 겹쳐 유가 일변도에서 우주적 종교관으로 변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관의 변모는 그가 선경인 남해 유배 생활에서 광범위한 독서와 선경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본다.

41) 권영대, 앞의 논문, 「西浦漢詩의 性格攷」, 『한문학론집』 第二輯, 1984, 88면.

42) 신재홍, 앞의 논문, 148면. 서포가 『서포만필』하권에서 처음으로 주역의 ‘팔괘 [팔선녀]’를 동일한 시-공간에서 언급했다는 대목은 세심한 검토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3) 위의 논문, 148면. 신재홍은 “선천 유배기가 1687년 9월 14일~1688년 11월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선천 적소 시절, 어머니 생일을 맞이하여 시를 쓴 이후 얼마 아니 된 사이(동지를 포함한 3~4개월, 이 소설을 시작에서부터 완성까지)에 창작된 『구운몽』이 바로 ‘동지’에 해당하는 『주역』 복괘 패사의 서사적 전개일 수 있다는 추정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우리가 다시 한 번 그 당시 실재했던 가장 절박했던 상황과 김만중이 남해 시절 3년 동안 남긴 일련의 작품, 즉 ① 모친 생일날 피눈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사친시」, ② 모친의 언행을 기록한 『선비정경부인행장』, ③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시 「동지」, ④ 『서포만필』 하권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주역』 ‘팔괘(팔선녀)’와 함께 ⑤ 『구운몽』과 『사씨남정기』⁴⁴⁾를 정치하게 비교 분석해보면 꼭 그렇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이러한 글을 종합해 보면, 남해 유배기에 김만중은 인간의 노력과 슬기로운 계책으로써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가장 절박했던 상황에 있었다. 『주역』은 접서였다. 이때야말로 그는 역점이라도 쳐서 한 가닥의 희망을 찾으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계기가 작가에게는, ‘가장 극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3일이므로 김만중은 선천에서 1687년 11월의 동지를 지냈고 이때의 감흥은 겨울 동안 남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서포가 남해 적소에서 처음으로 ‘팔괘(팔선녀)’를 주장하면서, 왜 그가 남해 적소에서, 그 노승에게 ‘자세히 묻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했을까? 즉, 그 당시 정황으로 보면, 서포가 선천에서 ‘동지’를 지냈고 이때의 감흥으로 그가 남해에서 바로 「동지」를 지었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견해를 여기서 특별히 거론하는 것은 자체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44) 『남정기』에 대해서는 풀어야 할 물음이 여럿 남아 있다. ① 『남정기』는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터인데, 『구운몽』에 관해 언급한 『서포연보』에서 유독 『남정기』가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② 『구운몽』이 和樂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면 『남정기』는 대립과 투쟁의 세계를 구현하고 있으며, ③ 『구운몽』의 인물 형상이 한결같이 넉넉해 보이는 반면 『남정기』의 인물 형상은 대체로 각박하다. (정길수, 『『구운몽』 다시 읽기』, 돌베개, 2010, 33면) ④ 양대 소설의 선·후창작설의 문제 등,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다면, ⑤ 지금까지 작자 미상의 일부 기록을 확대해석 하기보다는, 작자가 유배지에서 직접 쓴 『서포만필』이나, 『구운몽』 창작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전하는 획기적인 자료(작자의 초고 등)가 나와야만 논란이 종식된다고 본다.

서 기존 유가 논리와 이단시하던 불가 논리를 『주역』 팔괘(팔선녀)와 도교의 신선사상과 접목해, '통속소설의 효용성'과 함께 이를 소설이란 장르로 설명하려 했던 것이 장편의 『구운몽』 창작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구운몽』은 주역의 복괘에서 말하듯이 미숙한 인간이 성숙한 인간으로 커가는 과정을 그린 일종의 구도소설, 이상소설, 또는 성장소설이며 성숙한 단계의 인간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2) 『구운몽』의 서사 전개와 복괘 과사

다음으로, 『구운몽』 창작의 동기와 배경을 고려할 때, 『주역』 복괘 과사의 의미를 이 소설과 관련지어 논할 수 있다. 복괘의 과사를 살펴보겠다.

먼저, 『구운몽』에서 성진이 육관대사에게 “나쁜 길로 멀리 가지 않고 바로 돌아온다. 이는 『구운몽』의 사건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과사, 즉 “불원이복자야(不遠而復者也)”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팔선녀와 석교상에서 수작하고 절에 돌아와서는 스승님께 거짓말을 하고 자기 방에 돌아가서는,

“남아가 세상에 나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 요순 같은 임금을 만나, 나면 장수되고 들면 정승이 되어 비단옷을 입고 옥대를 띠고 옥궐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 밥과 한 병 물과 두어 권 경문과 일백 여덟 날 염주뿐이라. 도덕이 비록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⁴⁵⁾

라는 나쁜 생각을 하였지만 바로 잘못을 깨달아, 이 소설에서는 “부처 공부에서 특히 뜻을 바르게 하게 함이 으뜸 행실이라. 내 출가한 지 십 년에 일찍 반점 어기고 구차한 마음을 먹지 않았더니, 이제 이렇듯이 염려를 그릇하면 어찌 나의 진정에 해롭지 아니하리오?”⁴⁶⁾하고 생각을 바로잡음을 『주

45) 김만중 원작, 김병국 교주역, 『구운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23면.

46) 위의 책, 23~25면.

역』복괘의 초구 “나쁜 길로 멀리 가지 않고 바로 돌아온다”라는 말은 바로 ‘복괘’ 불원이복자야(不遠而復者也)와 연관 짓기에 적합하다. 이어지는 『주역』복괘의 괘사 ‘벗이 와야 허물이 없다’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복은 형통하니, 출입에 병이 없어서 벗이 와야 허물이 없으리라. 그 도를 반복해서 7일에 회복하니, 갈 바를 돕이 이로우니라.”⁴⁷⁾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초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구는 머지않아 회복함이라. 뉘우치는 데 이르지 않으니 크게 길하리라.”⁴⁸⁾

김석진은 “복은 앞길이 확 트여 양이 나가는데 막힘이 없는 데다 내괘가 진하련(震下連) 우레이므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형통하다. 그래서 나가든 들어오든 조금도 병통이 없다고 하였다. 복은 벗이 와야 허물이 없다(붕래 무구 朋來无咎). 아직은 양 하나가 회복된 상태이므로 양의 친구들이 다 와야 군자의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천도의 운행은 가고 오고 세월 따라 그 도를 반복하는데(반복기도 反復其道), 그 바뀌는 주기가 칠일이다(칠일래복 七日來復). 칠은 성수(成數)⁴⁹⁾로서 이루는 수이고 고치는 수이다.

내괘의 진하련(震下連)이 선천팔괘로는 사진뢰(四震雷)가 되고 후천팔괘로는 삼진(三震)이 되어 칠이라는 숫자도 자연 나에게 오게 된다. 육까지 쫓겨 갔다가 칠에 와서 회복하니 앞으로 나아가는 바가 이롭다(이유유왕리 有攸往). 앞이 트여서 양이 움직여 성장해 올라가므로 가는 바를 돕이 이로운 것이다.”⁵⁰⁾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복은 형통하니’라는 구절은 『구운몽』에서 주인공 양소유

47) 김석진, 『대산 주역강의(1)』, 한길사, 2001, 573~575면; 편집부 교열, 앞의 책, 453~454면. 復은 亨하니 出入에 无疾하니 朋來라야 无咎니 리라. 反復其道 하니 七日에 來復하니 利有攸往이니라.

48) 김석진, 위의 책, 580면. “初九는 不遠復이라 无祇悔니 元吉하니라.”

49) 1,2,3,4는 생수이고 6,7,8,9,10은 성수이다.

50) 김석진, 앞의 책, 573~574면.

가 전생에 맺은 팔선녀는 2처 6첩으로 환생한 여성을 차례로 만나 결연하고, 전쟁을 평정하고 외적을 무찌른 후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내용을 연상시킨다. 이 소설에서 모든 일이 심각한 장애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주인공 양소유와 여덟 여성의 욕망이 모두 성취된다. 이러한 점을 '복괘'의 패사가 말하는 '만사형통'의 의미와 관련지을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7일에 회복하니'라는 말에 대해 주석에서는 괘의 변화에 따른 5월에서 11월까지 시간의 경과로써 설명하였다. 즉, 구(姤 5월, ䷫), 돈(遯 6월, ䷠), 부(否 7월, ䷋), 관(觀 8월, ䷓), 박(剝 9월, ䷖), 곤(坤 10월, ䷁)을 거쳐 11월의 복괘에 이르는 것으로써 '7일'을 풀이하고⁵¹⁾ 이를 다시 '회복하는 시기'라고 규정하였다.⁵²⁾ 이러한 복괘의 패사에서 '회복'의 의미가 『구운몽』의 서사 전개와 상통한다.

또 괘24, 지뢰복(地雷復)은 '복귀'한다는 뜻이다. 복은 통한다는 뜻으로 출입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 어떠한 유혹이나 미혹이 따르더라도 화(禍)가 없다. 그 도를 반복하여, 나아가 일하기에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복괘에 의해서 영원히 만물을 유전 변화시키고 육성하여, 잠시도 휴식하는 일 없이 위대한 천지의 생의(生意)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⁵³⁾ 그러기에 지뢰복은 이 소설에서는 꿈속에서 깨닫기 전의 현실세계에서 미혹되었던 모든 의문과 유혹을 초달하여 현실의 세계에서 더 큰 도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처럼 『주역』 복괘의 패사는 이 소설의 시작부터 서사 전개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김만중이 남해 적소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한시 「동지」가 역학적 세계관을 소산으로 한 '복괘'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서포만필』 하권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팔괘(팔선녀)'의 논거가, 이 소설의 창작 배경과 개연성이 있다면, 『구운몽』과 한시 「동

51) 신재홍, 앞의 논문, 153면. 이와 달리, 복(復, ䷗), 사(師, ䷆), 겸(謙, ䷎), 예(豫, ䷏), 비(比, ䷇), 박(剝, ䷖), 복(復, ䷗)의 변화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기동 역해, 『주역강설』 2판, 성균관대출판부, 2006, 361면.) 재인용.

52) 신재홍, 앞의 논문, 153면.

53) 朴一峰 譯著, 『周易』(東洋古典新書12), 육문사, 1999. 223~231면.

지』는 『주역』의 복괘와 깊은 상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고찰을 종합할 때 『구운몽』은 작가 김만중이 유배 시절, 『주역』 ‘팔괘’의 역리와 도교의 신선사상이 결합한 ‘복괘와 팔선녀의 우화’라고 할 만하다. 이는 창작 당시 작가가 겪었던 가장 절박했던 유배 시절의 분위기가 그러했듯이, 절망의 상황에 부딪친 이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의미를 던지는 소설, 즉 희망과 구원의 서사인 것이다.

3. 김만중 시에 나타난 신선사상

1) 김만중의 시가 지닌 몇 가지 양상

서포 김만중(1673~1692)의 한시는 『서포집』 권1에서 권6에 걸쳐 실려 있다. 먼저 그의 문집인 『서포집』은 그의 아들 진화(鎭華)가 의성 현감으로 있을 때 간행한 것으로 김창흠(金昌翕)의 서문으로 되어 있다. 『서포집』에는 모두 366수의 한시 작품이 실려 있다. 366수는 작품 수량으로 보면 많은 양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시는 장편고시가 많다는 점(「단천 절부시」는 212구에 이르고, 「차비파행운」은 86구로 되어 있다.)을 고려하면 절대량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산문에서 서(書, 또는 장편의 편지글)가 한 편도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당시 복잡했던 시사(時事)와 관련 있는 한시가 그의 문집 편찬 때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그 한 예로 목은 이색의 경우 『목은집』에 실린 한시는 6천여 수가 넘지만 그의 정치적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공민왕 시기나 여말선초(麗末鮮初) 때의 작품은 거의 누락되어 있다.) 특히, 정치적 부침기의 그것은 이런 각도에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⁵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서포집』에 실린 한시에서, 여인을 제재로 한 청장년기의 작품들은, 나중에 『구운몽』, 『사씨남정기』, 특히 『구운몽』의 낭만적 소재

54) 임종욱, 『조선시대 불교 공간과 한문학의 자장』, 이회, 2015, 233~237면.

가 되어, 허구의 세계에서 재창조되었다⁵⁵⁾는 점이다.

다음은 김만중의 한시 가운데 신선사상을 논하기 전에 먼저 그의 시의 특색 있는 일면을 부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그는 비교적 정격한시를 많이 지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부(辭賦) 작품이 한 편도 없다는 점도 애석한 일이다. 특히, 남해 유배 시절, 그의 어머니와 주고받았을 ‘장편의 편지글(書)’이 그러하다. 이제 와서 따로 그의 편지글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점은 대단히 애석한 일로 여겨진다. 어쩌면 그의 장편의 편지글을 통해 우리는 김만중 당대의 역사적 현실이나 그의 개인사적 궁금증과 그의 소설작품에 대한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⁵⁶⁾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지었다고 하는 『사씨남정기』와 『구운몽』 작품에서는 자신이 직접 썼으면서도 이에 대한 자신의 언급을 일체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또 문제는 작자 미상의 『서포연보』에서 ‘저서(著書)’가 반드시 『구운몽』이라고 해석한다면, 왜 가문의 안위와 정치적인 현실의 매듭과 직접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터인데, 『구운몽』에 관해 언급한 『서포연보』에서 유독 『사씨남정기』에 관한 언급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점 등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저서’는 ‘장편의 편지글(著書)’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여러 면에서 논란이 남아 있는 점을 생각하면 그 아쉬움은 더욱 커진다.

2) 환상으로 승화된 선경 남해와 신선사상

55) 김병국, 「서포 김만중의 시세계」, 『한국문화』 제14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5~7면.

56) 임종욱, 앞의 책, 233~237면. 서포연보(김병국 역, 226면)에는 선천 배소에 있을 때, “우암이 편지를 보내어 말했다.”라 했다. 이 문제의 書(글)는 적어도 ‘서간’을 포괄하는 것이다. 선천 배소에서 ‘기몽’과 같은 ‘長詩’도 썼다. 또 남해 시절, “숙종 18(1692) 3월에 집안을 모두 데리고 南下할 계획을 세웠다가 실행하지 못하다.”(서포연보 253면) 등의 ‘長文’의 서간도 썼다. ‘저서’가 반드시 『구운몽』이라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

김만중은 『서포만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도교를 낮추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이단이라고까지 논박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유학은 교법이 다른 따름이지, 그 사상의 본질과 내용에 유사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예를 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남해 유배 시절, 『주역』 ‘팔괘’의 음양사상과 도교의 핵심인 신선사상은 그의 시문과 『서포만필』·『구운몽』의 전편에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도교사상은 본래 노장(老莊)의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장학파의 근본 사상보다도 거기서 파생한 신선사상이 더욱 문학작품에 영향을 끼쳤다⁵⁷⁾고 보겠다.

여기에서는, 『구운몽』 작품에 나타나는 신선사상의 배경과 몇몇 시를 문학적인 분석이나, 정감적인 감상은 뒤로하고, 『구운몽』 구조에서의 『주역』의 역리와 도교의 신선사상의 역할과 작품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암시하는 바를 찾아보는 데 초점을 맞춰 기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서포가 도교의 신선사상에 친숙해있었음은 앞에서 보았거니와, 서포의 신선사상은 수학기(修學期)나 사환기(仕宦期)보다 가장 절박했던 남해 유배기에 무르익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운몽』이라는 표제 자체가 벌써 도교에 가까움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 이 소설을 통하여 몇 부분을 살펴보면

“... 太祖가 洪水를 다스리고 衡山을 올라 碑를 세워 功德을 記錄하니 하늘
 글에 구름 篆字가 있으니 昭昭히 宛然하여 盡하지 아녔고 旣 時節 女仙 魏夫
 人이 道를 얻어 하늘 벼슬을 하여 仙官 玉女를 거느리며(下略)”⁵⁸⁾

라고 하였다. 하늘에 벼슬을 하여 선관(仙官) 옥녀(玉女)를 거느렸다 함은 완전히 도교의 여선(女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부인이 자기 시녀(侍女) 8명을 육관대사에 문안을 드리려 보낼 때 팔선녀는 선과(仙果)를 폐백(幣帛)으로 드리니 육관대사는 재(齋)를 열어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또 성진이 양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매 양처사가 아들 양소유의 머리를

57) 이종출 외, 공저, 『국문학개론』, 교학연구사, 1986, 288~289면.

58) 김만중 저, 김병국 역, 『구운몽』,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4면.

쓰다듬으며 하늘 사람이 적강하였다고 하는 곳에서도 도교적 신선사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진인 양소유가 지혜롭게 자라매 양처사는 그 부인 유씨(柳氏)에게 이르기를 자기는 원래 봉래산 신선이었는데 진세(塵世)에 인연이 있어 이 땅에 살았으나 이제 아들이 자라매 자기 본래의 고향인 선경(仙境)으로 돌아가려 한다.⁵⁹⁾

“... 모든 도인들이 處士의 집에 모다 한가지로 白龍과 靑鶴을 타고”⁶⁰⁾

인용문에서 양처사가 백룡을 타고 친구인 신선들과 더불어 떠나는 장면에서 도교적 사상이 극치를 이루고 있다.

다음 도인(道人)인 양생에게 팽조방서(彭祖方書)한권을 주며

“이를 익히면 비록 延年을 하지 못하나 또 可히 病이 없고 늙기를 물리치리라”⁶¹⁾

이르는 곳에서도 도교적 이상을 그대로 피력하고 있다. 또 인간 최대의 소망인 늙고 병들음을 물리칠 수 있는 세계를 구현할 가능성을 표출한다. 팽조는 갈홍(葛洪)의 『신선전(神仙傳)』에 나오는 신선의 하나로 그의 술법(術法)은 황산군(黃山君)에 전해졌는데 『팽조경』이 있다 한다. 팽조는 칠백여 세를 살았으며 왕의 부름에도 나가지 않고 오로지 불로장생의 양생(養生), 치신(治身)에만 힘썼다 한다. 『포박자(抱朴子)』에도 『팽조경(彭祖經)』 이야기가 나온다.⁶²⁾

다음에는 양생(楊生)이 채봉(彩鳳)의 이야기를 물으니 천기(天機)를 누설(漏泄)할 수 없다는 도인의 의젓한 자세(姿勢)에서 종교적 위엄까지 나타난

59) 김무조, 『서포소설 연구』, 『동아논총』 제11집, 1974, 182면.

60) 위의 책, 18면.

61) 위의 책, 28면.

62) 김용덕, 「구운몽의 사상적 배경 연구」, 한국언어문화학회(구한양어문연구) 제2집, 1980, 184~185면.

다. 마지막 양생이 선경을 나올 때 돌아다보니 도인의 집은 간곳이 없다고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도교의 신비를 볼 수 있으며, 또 양생이 산(山)을 내려오니

“生이 昨日에 山에 들어 올제 버들 꽃이 지지 아녘더니 하루 사이에 物色이 變하여 바위 사이에 菊花滿發 하였그늘 生이 고이히 여겨 사람을 만나 물으니 八月이 되었다.”⁶³⁾

우리는 이곳에서도 도교의 신비성을 익히 볼 수 있으며 선경(仙境)에서 하루는 인간세상에서 몇 날이 지났는지 모르도록 변화여 있다. 이와 같은 도교는 동양의 사상 속에서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이 곳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음은 김만중이 말년 절박했던 유배지에서 낙원을 꿈꿀 수 있는 구원의 희망과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도교적 신선사상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만중은 남해 유배지에서 귀양살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조카 또한 외딴 섬에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지었다. 그가 남해 적소에서 저술한 목적소설 『사씨남정기』에서는 이 소설의 유일한 목적도 실패하고 보니 남는 것은 오로지 죽음뿐이다. 그는 남해 유배 시절 3년 동안 적소 답사에서 얻어진 그의 마지막 종언의 기분은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다.

이러한 처지에서 김만중은 「재남해문양절배절도(在南海聞兩侄配絕島)」라는 한시에서, 남해유찬 때 양질이 절도에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의 참혹한 심정을 선경추구로 해소하고 있다. 그 시를 읽도록 한다.

「在南海聞兩侄配絕島」

- ① 蒼茫三島海雲邊 푸르고 아득하게 세 섬이 바다 구름 끝에 있으니
- ② 方丈蓬瀛近接聯 方丈과蓬萊, 瀛州가 가까이 잇닿아 있구나.
- ③ 叔姪弟兄分占遍 숙부·조카·형제가 두루 나누어 차지하고 있으니,

63) 위의 책, 29면.

④ 可能人望似神仙 사람들이 보고는 神仙같다 할만도 하겠네.⁶⁴⁾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작자는 남해 유배지에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심적 인 고통을 받고 있을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④에서 비운의 세 주인 공은 초월적 존재인 세 신선에 비유하였다.⁶⁵⁾ 이러한 김만중의 남해도(南海島) 유배는 희망이 있었던 선천 유배와는 달리 죽음을 의식하며 삶을 마무리해야 할 가장 절박한 지경에 있었던 그에게 삶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 시는 그가 남해에 유배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조카들 또한 다른 섬에 나뉘어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해에서 지은 작품이다.

남해의 정배(定配)는 서포의 생애에 있어서는 소생(蘇生)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이 화근(禍根)은 끝내 손자들에게 까지 미쳐 진구(鎭龜), 진규(鎭圭)가 제주, 거제도 내침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정배는 서포를 더욱 암담(暗澹)하게 만들었다. 이 시에 이르러서는 통곡이 아니고 피눈물 솟는 인간 김만중의 절규(絶叫)를 넘어 인생을 체념(諦念)하는 경지에 있었다는 것이다.⁶⁶⁾

64) 김만중 지음, 임종욱 옮김, 『西浦集』, 씨티프렌, 2010, 481면.(앞으로 『西浦集』의 인용은 이 책을 이용한다.)

65) 권영대, 「西浦漢詩의 性格攷」, 『한문학론집』 第二輯, 1984, 90면. 한편, 이 한시는 『구운몽』 같은 작품을 낳게끔 한 素材가 되었을 것이다.(김무조, 앞의 논문, 25면). 또, 1691년, 숙종 17년, 가을 從兄인 六化公 김만중이 방문했다. 그는 평소에 김만중의 세속에서 초연한 신선 같은 처신과 태도를 귀중히 여겼었다. 일찍이 김만중에 대해 말하기를, “세상에 신선이 없다면 모르겠거니와 있다면 아 무개가 참으로 신선”이라고 했다 한다.(김병국, 앞의 책, 194면).(밑줄:필자)

66) 『숙종실록(肅宗實錄)』이나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을 읽어 보면, 서포는 정치의 와중(渦中)에 꽤나 휩쓸렸던 모양이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즉, 더 자기의 이상에서 멀어져가는 당시의 세태(世態)와 질곡(桎梏)에서 정신적 도피처를 마련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무심코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저쪽 해운면(海雲邊)에 삼신선이 근접하여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선향에로의 동경의 의지는 자아상실을 더욱 부채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상과 환몽 속에 현실감 있게 시문에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박삼서, 「한국문

이러한 한 가족들의 숙명적(宿命的) 실패는 가문의 가권회복(家權回復)에 있어 모든 것을 단념한 상태이다.

그러기에 남해는 김만중이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한 마지막 유배지로 그의 한시와 소설 작품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남해에 대한 시·공간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 선경 남해와 관련성⁶⁷⁾을 생각해 보게 한다. 이처럼 김만중이 도교적 환몽에 잠길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마지막 적소였던 남해 유배지의 배경⁶⁸⁾과 공간 장소로 등장하는 지명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포는 이 소설의 벽두부터 배경의 환상성, 신비성을 의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학과 도교사상』, 197~198면) 참조.

- 67) 김만중 저, 김병국 역, 『구운몽』,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9~51면. 이 소설에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용문산(龍門山)과 관련된 한시의 대목을 살펴보면, ① 한시 「南海謫含有古木竹林有感于心作詩」가 그것이다. 이 시의 首聯을 보면, "용문산 위에 있는 같은 뿌리의 나무(龍門山上同根樹)"라고 했다. ② 이 소설에서 "이는 용문산 위의 벽력에 꺾어진 백 년 묵은 오동(梧桐)이다." (此龍門山龍門洞 掛長川上百年 自枯之桐木.)라고 했다. 즉 서포는 유배 시절, 한시와 소설에서, '용문산'을 공간 배경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또 학계에서는 용문사가 있는 '용문산' 기슭 어딘가에 서포의 謫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③ 서포가 지은 장편고시 「차비과행운」에는 "용문(龍門)의 마른 오동나무로 곡조를 뜯지 마시오. (龍門枯桐且莫彈)"라고 썼다. (임종욱, 『서포집』, 같은 책, 204면) ④ 이 시가 '춘몽 같은 미녀'로 분류된 작품으로, 임금과 신하 중에서 임금에게 이룬(彝倫)에 대한 당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정적 주인공이 여인의 일생에 초점을 맞추어 인생의 무상함을 반성적으로 조망(眺望)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병국, 「西浦 金萬重의 詩 世界」, 『한국문화』 14, 82~83면) ⑤ 南海郡 南面 石橋里 金龍得 老人(76歲)에 따르면, "石橋 마을 뒤편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 옛날 제경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仙女들이 굴로 나들이 했다'"는 傳說이 傳한다. (김무조, 「서포소설 성립의 배경」, 『국학연구론총』 제2집, 태민국학연구원, 2008, 5면.); 졸저, 『김만중 소설과 남해 용문사』, 암-에드, 2015. 참조. (밑줄: 필자)
- 68) 金容德에 따르면 "남해는 『구운몽』창작의 산실이다."라고 했다. (金容德, 「구운몽의 사상적연구」, 한양어문연구, 1980, 177~178면.) 서포가 仙化한 남해의 檀島는 絶島로 남해 섬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대부분 기암절벽으로 되어 있고, 특히 남서쪽은 경치가 수려하며 수림이 울창해서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한다. (南海島踏查報告書, 『崇田語文學』第6輯, 崇田大學校國語國文學會, 1977, 183~197면.)

천하에 이름난 산이 다섯이 있으니 … 썬 시절 女仙 魏夫人이 도를 얻어 하늘 벼슬을 하여 仙官 玉女를 거느려 형산을 鎮定하였으니 이른바 남악 위부인이라. 예로부터 오면서 신령한 자취와 기이한 일을 이루 기록치 못할러라.⁶⁹⁾

이와 같은 선동선녀를 거느린 위부인과 용왕 등의 선적 배경 설정은 이 소설을 대하는 첫 순간 독자를 환상의 경지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⁷⁰⁾

원래 도교사상은 '오악팔주(五嶽八主)'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⁷¹⁾고 한다. 오악은 오행사상에 따라 동·서·남·북·중앙에 큰 산을 배속시킨 것이다. 이 소설의 서두는 천하의 명산을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는 방위 체계에 따른 것이라고는 해도 다분히 작가의 도교 철학적인 사상이 강하다.

이어지는 한시 「도화욕동우유인(桃花欲動雨留人)」에서도

「桃花欲動雨留人」

春光兼客恨 봄빛이 나그네 근심과 맞물려
 渺渺遍南州 아득하게 남쪽 고을에 두루 감쌌네.
 已被花相惱 이미 꽃에 덮여 서로 괴로운데
 翻因雨少留 어지러이 비 때문에 잠시 머무네.
 渾疑湘岸夜 얼핏 상수 강가의 밤인가 의심스럽고
 緬憶武陵舟 아련하게 무릉의 배가 기억하는구나.
 竟日看紅濕 하루 종일 붉게 젖은 모습을 보노라니

69) 김만중 저, 김병국 역, 『구운몽』,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3~4면.

70) 김용덕, 앞의 논문, 190면. : 김무조, 「西浦小說의 成立」, 국학연구론총 제2집, 2008, 5~6면. 이를테면, “여기 남해 용문사 뒷산 遠山에 오르면 바로 五岳이 둘러 있는 것 같으니 사방에 솟아 있는 望雲山, 所屹山, 鹿頭山, 錦山이 天下의 名山の 축소판같이 전개된다. 더욱이 龍沼는 용문사의 계곡을 끼고 1km쯤 내려 가면 폭포로 이루어진 古然한 못으로, 옛 전설에 龍이 살았다고 해서 龍沼라 했다 하니, 中國 南海 洞庭湖 龍沼와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도 배경이 합당하다.”

71) 김용덕, 위의 논문, 181면. 서포가 『구운몽』의 첫 구절을 상법책의 구절과 비슷하게 시작한 것은 음양오행과 주역에 정통한 서포로서는 의도적인 표현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역사적 세계관이 확연히 드러난 묘사였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전선영, 앞의 논문, 40면)

聊忘去路脩 애오라지 갈 길 먼 것도 잊어 버렸네.⁷²⁾

라고 하였는데, 이 시는 남해도(南海島) 적거 시절, 적소 부근에 위치한 용문사에서 지은 작품으로 여겨진다. 김만중은 적소 근방에 있는 남해 용문사⁷³⁾ 계곡에서 앵강만(中國 南海 洞庭湖의 縮小版 譬喩)으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서, 혼연히 상강단애(湘江斷崖)의 밤인 양 여기면서, 남해 적소가 예로부터 일점선도(一點仙島) 바로 여기가 영원한 피세처요 선향(仙鄉)인 무릉으로 향하는 무릉주(武陵舟)를, 무심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절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그에게 이러한 이상향에로의 정신적인 유랑이 실현될 때에, 그의 고뇌는 소멸하게 된다고 하겠다.⁷⁴⁾

따라서 김만중은 남해 적소에서 3년이란 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고뇌의 녹아내림을 느낄 수 있는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참혹한 상황 속에서의 선계에로의 환몽을 통한 정신적 유람은 「계축구월십삼일(癸丑九月十三日)」(중략) 기삼 ‘몽섭홍운배자황(夢躡紅雲拜紫皇)’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김만중이 가장 불우했던 남해 유배 시절의 상황과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시 「동지(冬至)」와 관련된 『주역』 복괘의 패사와 도교의 신선사상이 『구운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요약하고 새로운 과제를 간단히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72) 『西浦集』, 앞의 책, 237면.

73) 南海島踏查報告書, 崇田語文學, 제6집(崇田大學校國語國文學會, 1977) 『구운몽』에 나오는 石橋里, 龍門寺 등은 서포가 『구운몽』을 창작할 당시 유배되었던 南海의 地名과 일치한다.(김용덕, 같은 논문, 190면) 참조.

74) 김용덕, 같은 논문, 190면. 남해 적소에서, 그러한 심상의 표출은 ‘구운몽의 내면적 배경’은 남해이며, 특히 그가 지냈던 신선사상과 소설 중에 묘사하고 있는 仙境은 남해의 절경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겠다.

먼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만중은 남해 유배 시절, 한시 「재남해문양질배절도(在南海聞兩徑配絕島)」에서, 모두 신선이 돼 있던 썸이라는 자조(自嘲) 섞인 절규로, 그 당시 참혹한 심정을 선경 추구로 해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시 「기몽」은 한 폭의 신선도(神仙圖)라 할 수 있다. 이는 작가가 유배지에서 선계(仙界)와 선향에 대한 치우침이 없었던들 이루어질 수 없는 몽중경(夢中境)이라 할 수 있다. 한시 「기몽」가운데 ‘각몽’에서 편유오악(徧遊五嶽)을 희망한 것과 『구운몽』에서 ‘오악(五嶽)’을 중심 배경으로 전개되는 것과 전연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이 소설에서 심요연과 양소유가 만나는 내용은 ‘뇌화풍(雷火風)’으로 ‘번개 우렛소리가 위에 들리고 번개가 아래를 비춘다’이다. 실제로 서포는 이 한시 「동지(冬至)」에서 보듯이 “바닷바람 밤새도록 우레처럼 소리 치네, 등불 앞 나그네 주역을 읽노라니”라고 했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역』을 읽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주역』의 풍괘는 “성대한 자로 양기가 지극히 왕성할 때”의 ‘복(復)’이기에, 『구운몽』에서도 동지의 절기에 해당하는 복괘 패사의 서사적인 전개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인공 양소유의 위엄으로 작용하는 우레가 이 패상의 대상(大象)이 의미하듯이 『주역』에서는 “우렛소리와 천둥소리가 함께 오는 풍이다.

다음으로, 서포가 선천 유배지에서 어느 노승과 담론하면서 『주역』과 도·불교 사상에 대한 서로 간의 신뢰와 그 당시 문답에서 풀지 못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가 남해 적소에서 주로 『주역』과 『주자어류』를 읽었던 것으로 본다면, 이 소설과 한시 「동지(冬至)」가 같은 사·공간에서 창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남해 유배 시절, 도교의 신선사상과 『주역』 팔괘(팔선녀)의 상상력으로 같은 심상에서 창작되었을 개연성과 연관 지어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구운몽』의 서사 전개에서 『주역』의 복괘 패사는 ‘복은 형통하니’로 시작하는데, 이는 주인공 양소유의 인생 역정에 부합하는 말이다. 복괘의 효(爻) 가운데 유일한 양(陽)인 초구의 ‘불원지복(不遠之復)’은 이 소설의 주인공

양소유의 인물 형상에 맞는 말이다. 또 ‘출입에 병이 없어서 벗이 와야 허물이 없으리라’는 말도 도가의 인물인 남전산 도인과 정사도, 천자 등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출세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복괘 패사의 대비는 이 소설에서 유교 대 불교, 현실 대 꿈, 성진과 팔선녀 대, 양소유 대 팔 부인의 대비와 관련 지을 수 있고, 현실-꿈-현실의 서사 구조도 이에서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김만중이 가장 불우했던 남해 유배 시절, 『주역』 팔괘와 도교의 신선사상과 함께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시 「동지」에서, 만사형통의 희망을 찾는데 적합한 『주역』 복괘 패사를 바탕으로 『구운몽』이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 『구운몽』의 사상적 배경 연구는 근래에 부상한 역학적 세계관과 관련된 도교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노자(老子)와 『역전(易傳)』의 음양 사상과의 관련성으로 그 연구 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것의 배경과 도교의 신선사상과 관련된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차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연구 자료를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한시와 『서포만필』 하권과 『구운몽』까지 확장하는 부분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金萬重, 「先伯氏瑞石先生跋」, 『서포집』, 통문관, 349~350면.
南海島踏查報告書, 『崇田語文學 第6輯』, 崇田大學校國語國文學會, 1977, 183~197면.

2. 논문 및 단행본

- 김만중 저, 김병국 역, 『구운몽』,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9~51면
_____, 저, 김병국의 역, 『西浦年譜』, 서울대출판부. 1992,
_____, 저, 심경호 옮김, 『서포만필』 하, 문학동네. 2010, 43~44면.
_____, 저, 임종욱 옮김, 『西浦集』, 씨티프렌, 2010, 481면.
_____, 저, 홍인표 역, 『서포만필』 일지사, 1987, 2면.
_____, 저, 김병국 역, 『구운몽』,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9~51면.
김병국, 『서포 김만중의 생애와 문학』, 서울대출판부, 2001, 144~150면, 22면
_____, 「서포 김만중의 시세계」, 『한국문화』 제14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5~7면.
_____, 「서포의 유배생활과 소설문학」, 『남해관련서포문학의재조명』, 서포 김만중 남해기념사업회, 2002, 45면.
_____, 「九雲夢의 에피그라프 記夢」, 『국어교육』 14호, 한국교육연구회, 1968, 81면
金容德, 「구운몽의 사상적 연구」, 한양어문연구, 1980, 177~178면.
김무조, 「西浦의 漢詩考」, 『又軒 丁仲煥博士 還曆紀念 論文集』, 1974, 531~532면.
_____, 「西浦小說 成立의 背景」, 『서포 김만중의 소설과 적소에 관한 고찰』, 남해역사연구회, 2009, 13면.
김학돈, 「한국소설의 시간과 공간 연구-역경의 관점에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6~64면.
김석진, 『대산 주역강의(1)』, 한길사, 2001, 580면.
권영대, 「西浦漢詩의 性格攷」, 한문학론집 第二輯, 1984, 88면.

- 고전순·이기동 역, 『주역이란 무엇인가』, 여강출판사, 121면.
- 朴三緒, 『『구운몽』, 그 思想構造의 分析和 理解』, 국학자료원, 1998, 399~402면.
- 박성재, 「서포소설 성립의 배경 연구」, 남명학연구, 제52집, 2016, 79~120면.
- _____, 『김만중 소설과 남해 용문사』, 엠-에드, 2015.
- 朴一峰 譯, 『주역』, 동양고전신서 12, 육문사, 1999, 223~231면.
- 배영희, 『구운몽의 역학적 분석』, 원용문예, 1995, 13~403면.
- 憑友蘭, 『중국철학사』, 까치, 2007, 462면.
- 설성경, 「서포문학의 초월적 세계」, 『남해관련 서포문학의 재조명』, 서포 김만중남해기념사업회, 2002, 61~63면.
- _____, 「구운몽의 창작 동기와 주제의식」, 『한국소설의 이해』, 2008, 78~80면.
- 이종출 외, 『국문학개론』, 교학연구사, 1986, 288~289면.
- 임종욱, 『조선시대 불교공간과 한문학의 자장』, 이회, 2015, 233~237면.
- _____, 「김만중의 한글문학에 대한 관심과 『사씨남정기』의 문학적 성취」, 『진주한글』 제2호, 185~186면.
- 전선영, 「구운몽의 역학적 세계관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최인자, 「작중 인물의 의미화를 통한 소설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7면.
- 신재홍, 「구운몽과 『주역』의 복괘의 관련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제38집, 2018, 140~142면.
- 高田淳, 이기동, 『주역이란 무엇인가』, 여강출판사, 1991, 110면.
- 詹石窗, 『易學與道教思想關係研究』, 廈門大學出版社, 2001, 63면.
- 편집부 교열, 『비지구해 원본 주역』, 명문당, 1999, 460면.

【Abstract】

A Study on Thinking Background of Novel Guwunmong

Park, Seongjae

Recently, in the discussion of theoretical motive or background of the novel Guwunmong, the perspective contained in Juyeok(Book of Changes, 周易), a traditional thinking method in East Asia, has been popular. This paper tried to describe the aspect of hermit idea of Taoism and the perspective of the Book of Changes in the novel more concretely. This paper views that 'Dongji (winter solstice, 冬至)', poem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which was the last poem written by Kim Man-jung, the author of the Guwunmong, when he was in desperate situation in a place of exile in Namhae in Korea, indicates that Guwunmong is directly related with palgwe (eight signs of divination, 八卦) and hermit idea of Taoism.

In his Chinese poem, 'To Hear from Namhae the News that My Two Nephews Were Exiled to A Remote Island,' Seopo Kim Manjung sarcastically described his and his nephews' dismal situations as 'All become Taoistic 'hermits''. And, in his poem 'Dongji', he mentioned palgwe and hermit idea of Taosim. This paper analyzed how these were related with the background on which Guwunmong was written.

First, the situation in the novel where Shim So-yeon and Yang So-yu met is 'thunder fire wind (雷火風)' where "one could hear thunder and lightning illustrates below." In his poem, 'Dongji', Seopo mentioned "sea wind shouts all night long like thunder." And, said, "a guest reads

Juyeok under the candle light.” In Juyeok, punggwe becomes taeuipalgwedo ‘when a big guy is full of masculine energy’. Therefore, as the thunder operated by the majesty of Yang So-yu means daesang (大象) in the gwesang, Juyeok contains the phrase, “the sound of rain-thunder is pung. With such an atmosphere, in his place of exile Seoncheon, he met a old monk, and discussed with him Buddhism and imagination contained in Juyeok such as palgwe. We we assume that, to solve the questions raised in the discussion, he mainly read Juyeok and Jujaeoryu in the place of exile in Namhae, the novel and Chinese poem ‘Dongji’ probably have been created in the spirit of hermit idea of Taoism and imagination of Juyeok, when he was in exile in Namhae.

Up to now, Buddhism and conflict between Confucianism and Buddhism have been offered as the background of Guwunmong. But, it is time to raise the discussion of Laozi (老子) which can be said to be Taoistic philosophy related with views of Juyeok and traditional yin-yang thought as the background of Guwunmong.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search scope to Laozi (老子) which can be said to be Taoistic philosophy, a traditional thinking method in East Asia, and traditional yin-yang thought.

Key words : Guwunmong, Juyeok, Bok-gwae, dongji, Taoism, hermit idea.

이 논문은 2019년 10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11월 1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11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